나해정 이인화 이학수 사무관 승진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9일 승진발령

나해정 과장

이인화 면장

이학수 면장

조직개편에 따라 3월19일 나해정 6급 담당을 비롯한 이인화, 이학수 담당 등 3명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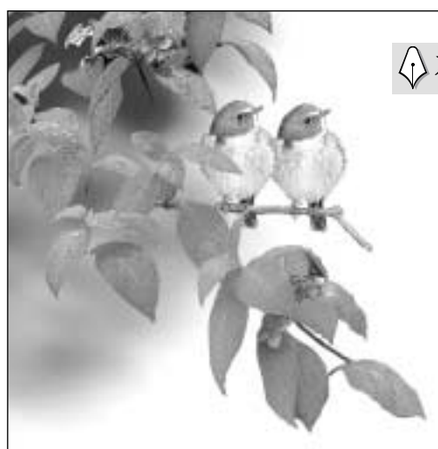
경제농정국 환경위생과장으로 승진발령 받는 나해정(50) 과장은 광주농고를 졸업한 후 1977년 공직에 입문했다.

나 과장은 군내면 재무담당을 비롯한 창수면 총무담당, 건설교통과 도시담당,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을 역임했다. 또 장관표창 3회와 도시자표창 3회, 시장표창 1회를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영중면장으로 발령받은 이인화(49) 면장은 관인고를 졸업하고 1977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 면장은 신북면 재무계장과 신북면 총무계장, 포천읍 총무계장,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을 역임했다. 또 국무총리표창 1회를 비롯해 장관표창 2회, 도지사표창 1회, 시장표창 3회를 수상한 바 있다.

창수면장으로 발령받은 이학수(50) 면장은 포천고를 졸업하고 1977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 면장은 가산면 재무계장, 가산면 총무계장, 창수면 총무계장,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농축산과 농정담당을 역임했다. 그는 또 장관표창 2회, 도지사표창 1회, 시장표창 3회 등을 수상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하루의 행복을 꿈꾸며

김 은 숙
주부 명예기자

핸드폰 알람에 시간을 맞추어 놓고 잠이 들었다. 아침6시. 고요한 어둠 속에 나를 깨우는 음악소리가 잔잔히 나를 뒤흔든다. "아 일어나기 싫어라"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지 작심삼일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날로 늘어만 가는 체중. 그 살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무너지기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꾸준히 노력해야지 하면서 알람소리에 맞추어 일어나 심호흡을 한번 해보고 옷을 주섬주섬 추려 입고 밖에 운동장에 섰다. 크게 크게 두 팔을 벌리고 시원한 아침공기를 한번 들이켜 본다.

고개를 흔들고 무릎도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예쁘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걷기 시작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의 환한 빛이 차츰차츰 고개를 든다. 서서히 찾아드는 빛과 함께 운동장 돌기를 거듭거듭 힘차게 걸음을 옮긴다.

고요한 새벽 "사랑하는 아들도 운동을 하겠지"라며 떨어져 생활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보이지 않는 신께 기도를 한다.

"오늘도 웃을 수 있는 날 되게 해주소서!" 커다란 행복은 아니어도 작은 행복을 기원하며 새벽공기를 힘차게 들이키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겠지"라고 소리 없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전하며 빠른 걸음을 옮겨 보는 가운데 힘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경기대진TP 중국 국제가구박람회 연수

가구시장 파악 지역 가구산업 활성화 모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 등 일행은 3월16일부터 20일까지 국제가구박람회가 개최된 중국 광주 등을 참관했다.

이 기간동안 개최된 국제가구박람회는 국제명가구 전람회로 세계4대 가구박람회에 해당된다. 이번 박람회 참관은 해외 가구시장 및 디자인 동향을 파악해 침체된 포천지역 가구산업 활성화와 해외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17차 국제명가구(동관)전람회로 명명된 박람회는 중국광동성 동관시 후가진 국제전시관에서 지난 3월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됐다.

총24만 평방미터(약 8만평) 공간에서 미국과 일본, 이태리, 한국 등 9개 국가에서 5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또 국제 가구상 및 가구산업 관련 종사자 4만5천여명, 중국 가구상 및 가구산업관계자 10만평 등 15여명이 참가했다고 참관단은 전했다.

참관단은 17일 개막식에서 참가업체 및 가구협회 인사들과 환담하고 안준수 원장과 고조흥 국회의원은 동관시 중앙방송과 한중 가구산업의 협력 가능성,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또 참관단은 중국광동성 가구협회 비서장과 한국가구산업체 및 협회와의 교류의사 타진을 비롯한 가구시장 개척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구특화센터를 소개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여단입구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반대

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부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매연이나 소음 유해물질 등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고 대세입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의 정부나 지자체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아는 바입니다.

이 모든 환경의 지킴과 보전도 인간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천시 설운동(여단입구)에 가스 충전소를 민간업체나 제출한 허가신청을 주민편의시설이라는 목적만으로 타당성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 만으로 처리하려는 포천시 관계자분에게 정중하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위험물시설이 설치되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포천시민의 생활편의시설인 버스가스충전소의 설치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도 인지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의 주인은 포천시민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포천시 관계자분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설운동 여단입구는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소음 그리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군부대의 진입부지 인 관계로 군 작전차량이 수시로 통행을 하는 곳으로 국방부의 작전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사항에서 수많은 대형버스가 드나든다면 너무나 복잡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의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상 민 포천시설운동

사회단체 탐방 3

포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백 성 기 회장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市에서 납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창출 위해 노력

포천시에는 28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중 1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의 모임인 포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2005년 12월에 창립돼 운영되고 있다.

2007년 3월 현재 11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연합회는 ▶원일1차아파트 ▶상운아파트 ▶우정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신포천아파트 ▶유한아파트 ▶일신아파트 ▶현대아파트 ▶리버아파트 ▶윤중아파트 ▶원일2차아파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총연합회 백성기(63 · 사진) 회장은 총연합회 활동에 대해 "낙후된 아파트 지원대책은 물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를 주민부담에서 포천시의 부담원칙으로 시 조례를 제정해 2007년부터 각 아파트단지에 지급하게 되었다"며 연합회가 결성된 후 이룩한 주요사업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연합회 설립목적에 대해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현재 11개 입주자 대표가 참여하여 28개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료를 시에서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앞으로도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곳을 보수하고 가로등을 교체하며 어린이놀이터 등을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합회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백 회장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소머리라도 삶아서 떡과 함께 베풀고 싶다"며 "기금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천 관내 아파트단지 대표들이 다 모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선단동이 고향인 백 회장은 서울에서 살다가 22년 전에 상계마을에 들어와 대표로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상운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어려운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 탓에 상계마을의 기틀을 세우는데 남다른 고생을 했다는 백 회장은 월남파병으로 고엽제판정을 받아 월남참전고엽제포천시전우회 상임고문으로 활동중이다.

해병대전우회 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중인 백 회장은 "상운아파트의 경우 초가팔리로 포함돼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과 아파트를 분리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전기요금 대가족 요금제 신청 안내

한전은 지난 1월15일부터 5인이상 가구 등에 대한 대가족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자녀 · 부모동거 등 가구원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고객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다자녀 및 노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가족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1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의 독립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0%인 158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월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각 누진적용 단계별로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월 400kWh 사용 고객은 약9천원, 500kWh 사용 고객은 약2만2천원, 600kWh 사용 고객은 약5만4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대가족 요금제 적용대상 중 아직까지 해당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539-0231)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47번 국도 4차선 인근 도로옆

최적의 입지공간 공장임대

잔여 15동

제조업 · 철공장 · 금속공장 등에 최적

보 증 금 : 1500만원
월 임대료 : 180만원

공장등록필, 한동에 동력 30kw, 넓은 주차공간 보유

☎ 031) 531-0012 H.P 011-267-5498 (내촌면 음현리 소재) 박 종 하